A15

원발성 신질환이 있는 임신시 신기능과 태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 대학교 의과 대학 내과학교실
신영신, 이승헌, 양철우, 김용수, 김석영, 구완서, 윤영석, 방병기

원발성 신 질환이 있는 임신시 신기능 및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1980년부터 1994년까지 강남 성모 병원, 성 빈센트 병원에서 원발성 신질환을 진단 받고 임신을 했던 28명 환자, 39예(Ig A 신염 20예, FSGS 4예, 미세형 사구체 신염 2예, 막성 신증 1예, 막증식성 신증 1예, 기타 8예, 만성신부전 3예)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임신전 혈청 크레아티닌치에 따른 영향은, 정상 신기능(Cr<1.4 mg/dl)인 29예중 신기능장애 심화 1예, 태아 사망 4예였고, 경도 신기능 장애(1.4≤Cr<2.8) 3예중 신기능 장애 심화 모든 예에서, 태아 사망 1예에서 나타났으며, 중등도 신기능 장애(Cr≥2.8) 4예 모두에서도 신기능 장애 심화가 있었고, 태아 사망은 3예다. 투석중인 만성 신부전 환자 임신 3예 모두에서 태아가 사망했다.
2. 임신전 혈압에 따른 영향은, 정상 혈압 27예중 신기능 장애 심화 없었고, 태아 사망은 2예였으며, 고혈압(혈압>140/90mmHg) 12예중 신기능 장애 심화 9예, 태아 사망 9예였다.
3. 39예 임신 결과는, 정상 분만 20예,미숙아 8예, 태아 사망 8예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신기능의 저하와 고혈압이 동반된 원발성 신 질환 환자의 경우 임신은 신기능과 태아에 악영향을 미칠 수있다.

A16

B형 간염 표면 항원 양성인 성인 미세변화 신증후군의 임상상 및 치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병리학 교실*
이상구, 전은실, 김연수, 안규리, 한진석, 김성권, 이정상, 이현순*

미세변화 신증후군은 막성신병증과 함께 성인 신증후군의 가장 많은 원인이며,스테로이드 제제나 세포독성 약제에 잘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미세변화 신증후군 환자에서의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HBs Ag) 양성율은 우리나라 일반인의 양성율인 5-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미세변화 신증후군의 임상상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여부와 치료시 간기능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자들은 HBs Ag양성인 미세변화 신증후군(HBV-MC)의 임상상과 치료시 간기능 변화 양상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1979년부터 1994년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미세변화 신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HBs Ag양성인 2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바이러스 감염의 증거가 없는 미세변화 신증후군(MC) 환자 25명과 비교하였다. HBV-MC 환자의 연령은 28(17-54)세 , 남녀 비는 16:5로 MC군과 차이가 없었다. 질환 발현시 고혈압은 5명 , 현미경적 혈뇨가 6명 , 고질소혈증이 4명에서 관찰되었고, 이는 MC군과 차이가 없었다. 24시간 요단백과 혈청 콜레스테롤 치는 양군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혈청 알부민과 혈청 IgG는 HBV-MC에서 MC군에 비해 높았다. (2.3+0.15g/dL vs 1.8+0.08(mean+SE), 600+94.7 mg/dL vs 337+60 (mean+SE): p(0.05). 혈청학적 검사에서 RA factor, cryoglobulin, ANA의 양성율은 양군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스테로이드나 세포독성 약제를 사용한 환자에서,치료후 누적 관해 유도율은 HBV-MC군에서 8주 내에 13/14명, 16주 내에 14/14명으로 MC군의 18/21명, 19/21명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발율은 HBV-MC군에서 16주 내에 1/11명, 25주 내에 2/9명, MC 군1/16명,1/15명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HBV-MC 환자에서 혈청GOT,GPT치가 4배이상으로 상승된 환자는 2명이었다. 그중 한명에서 HBe Ag의 양성전환이 있었으며 다른 한명은 간생검 결과 간경화로 진단되었다.

이상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성여부가 성인의 미세변화 신증후군의 임상상에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스테로이드 제제나 세포독성 약제의 사용이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